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사기 9]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아비멜렉-기드온의 사생아, 세겜에서 기드온의 여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족의 충성심과 질투심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세겜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공백이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탈출한 막내 요담은, 아비멜렉 즉위식 중간에, 강력한 비유로 항의합니다! 나무들과 그들의 왕; 올리브, 무화과, 포도: 모두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왕위를 거부하고 가시: 쓸모없고 위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왕위를 받아들인다는 비유입니다. 요담의 요점은 전혀 쓸모없고 위험한 사람인 아비멜렉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은 서로가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일어나지 않아 커집니다. 3년이 지난 후 아비멜렉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생기고 그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맺돌입니다.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모압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대중의 의견이 진실과 도덕을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까? 죄는 그 자체로도 영향을 주고 그 결과를 낳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 *"사람이 행하는 악은 그 뒤에 산다. 선한 사람은 뼈와 함께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율리우스 카이사르, 3막 장면 2). 너무나 빨리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죄는 모든 상식을 파괴합니다. ○ 여자한테 살해당했어?? ○ 우리 가치체계의 총합은... ○ 타 이타닉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세요!

우리도 요담처럼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23-24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 그분은 악의 범위를 제한하셨습니다. ○ 그분께서는 아비멜렉의 생을 짧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정의와 진리와 공평을 낳게 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11:33-34 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로마서 11:33-34)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언약의 징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그 파괴력의 강도가 매우 강하여 인간의 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노 안에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과 구속의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최악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일(하나님의 공의)을 위해 소비되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로새서 2:15)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징계를 행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은 그 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